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6호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폭행 후 2000만원’ 건넨 최철원 대표,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거부’

이솔 MHN스포츠 기자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설문조사

“체육인 74% ‘체육계 부패 심각’ 인식...신고 소용없어”

김치연 연합뉴스 기자

[스포츠와 법의 만남]

스포츠윤리센터의 미래

이장호 변호사 오피니언

베이징올림픽

발리에바 향한 ‘피겨퀸’ 김연아의 일침... “원칙에 예외는 없어야”

하남직 연합뉴스 기자

[박지훈의 스포츠법정]

프로선수는 ‘공인’이 아니라 ‘유명인’이다...특혜도 안되지만 불이익도 안돼

이근승 스포츠춘추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폭행 후 2000만원’ 건넨 최철원 대표,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거부’

‘맷값 폭행’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마이트앤메인(M&M) 최철원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최 대표가 대한체육회에 제기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2020년 12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그는 2010년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50대 운수 노동자를 불러 폭행하고 ‘맷값’으로 2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면서 ‘맷값 폭행’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혐의로 최 대표는 이듬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맷값 폭행’ 논란으로 비판적 여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대한체육회는 그의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을 거부했다.

체육회는 "스포츠 인권 개선에 대한 체육인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철저한 윤리의식과 높은 도덕성, 청렴함 등 자격 요건이 중요시돼야 하므로 당선인의 과거 폭행 사건은 임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인준 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반발해 최 대표는 법원에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5월 최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대한체육회의 손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최 대표의 인준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비용은 최 대표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최 회장의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지난 1월 4일 회장 선거를 (재)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체육인 74% ‘체육계 부패 심각’ 인식... 신고 소용없어”



체육인 대다수가 체육계 부패 문제를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도, 관련 기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부패방지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설되는 등 제도적 장치는 있지만, 신고와 적발이 어렵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선수·지도자·심판·스포츠행정가 등 체육계 종사자 20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4.4%는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체육단체와 관련한 부패행위 중에선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이 51.7%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특정 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는 18.7%, 공금횡령·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 비리와 체육단체 장·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는 각각 10.3%로 그 뒤를 이었다.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에선 선수·지도자 불공정 선발 문제와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문제가 각각 35.5%로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됐고, 입시 관련 비리(10.8%), 편파 판정(9.9%), 승부조작(3.9%)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체육계 내 부정부패를 알게 되더라도 신고하기까지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신고해도 관련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응답자 가운데 부패행위와 관련해 신고한 경험이 있는 17명 중 신고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52.9%였다. 그중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35.3%에 달했다.

연구진은 "지지부진한 후속 조치와 2차 피해로 인해 신고자들이 신고의 효과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신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명확한 부패행위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22.2%였고, 부패행위자의 체육계 인맥에 의한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17.2%)는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의 12.8%는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 무력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0%는 부패행위 적발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고, 부패행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1.1%였다.

체육계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관별로 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0%가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38.4%,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37.1%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그간 체육계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로 신설됐지만, 효과성에 대해선 기존 장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이라며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더 효율적인 스포츠비리 방지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미래



법조신문
이장호 변호사

2022.02.14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6월경 발생한 고 최숙현 철인 3종 선수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 및 비리를 제거하고자 2020년 8월경 설립된 기관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독립법인으로 탄생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복지센터에 나누어져 있던 스포츠인권에 대한 업무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그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2022년 1월 노조의 파업소식까지 들리는 것은 누적되어 있던 센터 내부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 아닌지 묻게 된다. 또한 기관 원래의 목적인 스포츠계 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에 대한 조사업무 및 사후처리절차가 잘 진행되는지 등이다.

기관의 내부 문제는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언론기사나 자료를 보면 인사 및 예산에 있어서 불공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직원채용에 있어서 비리가 있었다든가 직원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든가 하는 것이다. 초대 이사장도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물러나고 2대 이사장이 취임하였으나 내부 불만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모양이다.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사후조치인데 그 기능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의문이다. 조사 진행 후 자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하, 기각할 수 있고 징계요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1회 열리며 조사에 따른 서류심사정도에 그치는 것이어서 과연 징계사안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권이나 변론권 등 자기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징계는 당사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분상의 제약을 가져오는 절차이다. 그런데 징계요구를 하는 결정문을 보면 징계근거조항과 중징계 또는 징계요구한다는 내용이 전부일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나 당사자의 기본적인 주장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를 받은 체육단체는 당해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결정을 한다. 이때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 소명을 듣기는 하지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문에 기속될 가능성이 커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가 적정히 이루어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및 심의절차가 중요하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충이 필요하다.

더이상 스포츠계 비리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비난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장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케이앤코 대표

발리에바 향한 '피겨퀸' 김연아의 일침... “원칙에 예외는 없어야”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피겨퀸' 김연아(32)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당연한 세 문장'이 한 시간 만에 5만명 이상의 '좋아요'를 얻었다.

김연아는 굳이 누구를 대상으로 던진 일침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팬들이라면, 김연아가 글을 올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김연아는 14일 SNS에 영어로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Athlete who violates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고 썼다.

베이징올림픽에서 '도핑'으로 관심을 끄는 선수는 피겨 스케이팅 '신기록 제조기' 카밀라 발리에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에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AS의 결정에 따라 발리에바는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출전한다.

베이징올림픽 최고 스타로 꼽힌 발리에바는 7일 ROC 동료와 함께 출전한 피겨 단체전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IOC가 "8일 예정된 피겨 단체전 시상식을 법적 문제로 연기했다"고 발표하면서 발리에바의 도핑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제출한 발리에바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러시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당시 대회에서 발리에바는 총점 283.48점의 비공인 세계 기록으로 우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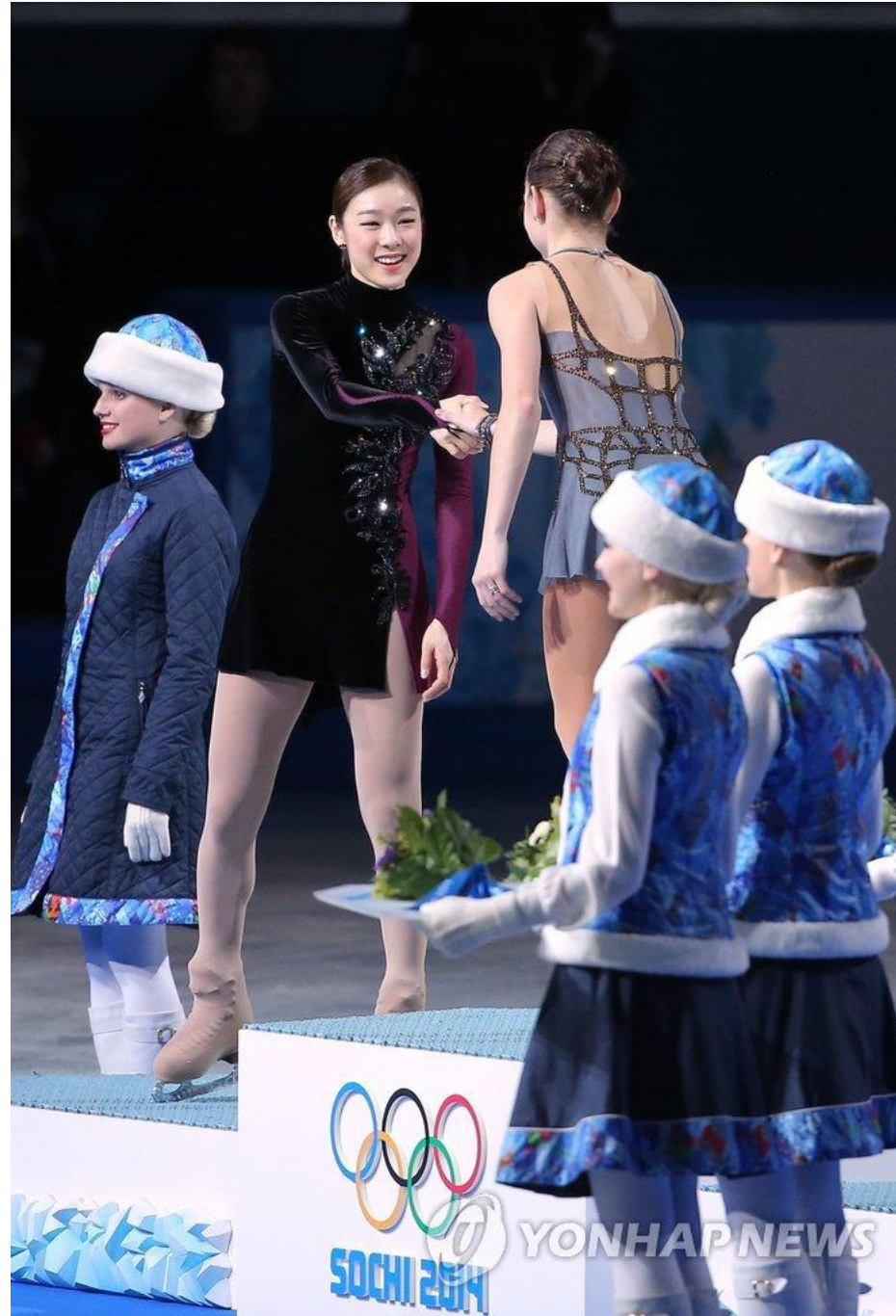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WADA는 2014년 이를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다음 장 계속



yunakim Athlete who violates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

48분



우여곡절 끝에 CAS가 발리예바의 개인전 출전을 허용하면서 그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졌다.

새러 허시랜드 미국올림픽·패럴림픽 위원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스포츠의 진실성을 보호하고 선수, 코치, 관계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도록 해야 하는 건 올림픽 전체 공동체의 집단 책임"이라며 도핑 위반자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한 CAS의 결정을 비난했다.

트래비스 타이거트 미국반도핑기구위원장도 "발리예바가 올림픽에 뛸 수 있는지, 기록이 실격 처분될지 등은 오로지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올림픽에서 6회 연속 경쟁을 탈취하고 깨끗한 선수와 대중의 순간을 훔쳤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세계가 인정하는 피겨퀸 김연아마저 CAS의 결정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는 2014년 소치 대회에서는 '판정 논란' 끝에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소치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는 당시 심판 판정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은메달에 만족한다는 인터뷰를 했다.

자신의 메달 색과 관련한 심판 판정에도 담담했던 김연아가 '도핑 논란'에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연아의 SNS를 찾은 한 외국 팬은 "여왕의 말씀"이라고 강한 지지를 표했다.

프로선수는 '공인'이 아니라 '유명인'이다... 특혜도 안되지만 불이익도 안돼

2022년 1월 프로농구 삼성 썬더스 천기범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서 KBL(한국프로농구연맹)로부터 54경기(한 시즌)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1년간 출장정지'라는 구단 자체 징계가 추가로 예정됐던 천기범은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천기범은 부산 중앙고 시절 '천재 가드'로 명성을 떨쳤다. 2016년 드래프트 전체 1라운드 4순위로 삼성에 입단한 전도유망한 선수였다. 그런데 프로에 와서는 좀처럼 기량을 만개하지 못했다. 지난해 상무 제대 후 옛 명성을 찾으려고 절치부심했으나 음주사건이 터지면서 이 역시 무산됐다.

필자는 천기범의 음주운전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당시 상황이 어찌 됐든, 천기범의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당연히 나라가 정한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필자는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있을 때마다 유독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일반인보다 가혹한 제재, 즉 2중, 3중의 제재를 받는 건 아닐까란 생각을 하곤 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직장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천기범의 경우 프로농구계에서 제명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자신의 직장뿐 아니라 '그 직업 자체'를 박탈당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하물며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길어야 10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농구 선수에게, 그것도 20대 후반의 한창 때의 선수에게 2년을 쉬라고 하는 것은 '프로농구 선수'라는 직업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요컨대 이러한 가혹한 제재가,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라는 국민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스포츠 선수가 일반 국민에 비해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프로스포츠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천기범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와 관련해서는 형법이 정하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흔히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을 보고 '공인(公人)' 운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공인이 아니다. 이들이 공적 업무, 즉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사회인이자 우리보다 좀 더 알려진 유명인일 뿐이다.

주간 스포츠 소식

베이징 패럴림픽 앞둔 대표팀, 선수 단장 아낌없는 지원 약속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97927?ref=naver>

발리에바 도핑 의혹 보도한 기자들... "살해 협박받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312300004519?did=NA>

“배움으로 단단하게, 흘린 땀만큼 평등하게!”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3718>

빠따 맞는 자식을 왜 낳으셨나요?

<https://www.jjan.kr/article/20220208580424>

한복 논란부터 편파판정까지...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이 불 붙인 반중 정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2081639011>

KT-픽셀스코프, 인공지능으로 스포츠경기 무인 중계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5040400017?input=1195m>

이상화의 눈물, 황대헌의 사과...이게 스포츠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8160>

[올림픽] 한국 선수단, 쇼트트랙 판정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8008000007?input=1195m>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년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 인턴 모집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38406632230848&mediaCodeNo=257&OutLnkChk=Y>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